

올 시간여행축제 방문객 증가

지난해 보다 3만여명 많은 13만647명 방문

‘2023 시간여행 축제’를 찾은 관광객과 시민이 지난해보다 3만여명 많은 13만647명이 축제장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산시는 지난 10일 시간여행축제 추진위원회 위원, TF위원들과 함께 ‘2023 군산시간여행축제 성과분석 연찬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분석 연찬회는 2023 군산시간여행축제의 전반적인 추진 성과와 개선사항을 토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4 군산시간여행축제’의 추진 방향을 모색하고자 진행됐다.

이런 연찬회에서는 시간여행축제를 직접 주관하고 실행했던 운영진들이 본인의 아이디어가 축제 때 잘 구현이 됐는지 또는 미흡했던 점은 무엇인

지? 등 생생한 후기를 공유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연찬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올해 시간여행축제가 지난해 축제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 해소에 주력한 결과 다채로운 프로그램 기획, 다양한 체험행사를 통한 교육적 성과, 축제기간 중 성공적인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방문객 예측결과 지난해 보다 3만여명 가량 증가한 130,647명이 축제장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축제기간 중 전북 도내에서만 전주, 완주, 임실, 김제 등지에서 다양한 축제가 개최됐으나 군산시간여행 축제에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면서 군산의 대표적인 축제로서 손색없음을

실감케 했다.

시간여행축제 추진위원들은 올해 시간여행축제의 성과를 크게 네가지로 꼽았다. 첫째, 각종 미션수행 및 유료 프로그램 참여시 기념품을 군산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근대먹거리촌, 빵축제, 특산품판매장 등을 통해 지역 상인들의 실질적 매출을 증대시킨 부분, 둘째, 근대의 맛이라는 주제표현을 위해 근대막방 300, 커피아일랜드, 빵야 빵야 등 근대 먹거리를 소재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한 점, 셋째, 안전관리 기준에 맞춰 전문안전관리업체를 선정하고 KT의 인과집중 모니터링 서비스를 활용해 효율적인 안전관리에 집중한 점 넷째, 먹거리 바가지 근절을 위해 음식점체와의 사전조율과 먹거리 정보 홈페이지 공개 등을 축제에서 잘된 부분으로 평가했다.

/익산=이재춘기자

군산대학교-OCI홀딩스 외 3개기관 업무



국립군산대학교는 지난 10일 OCI홀딩스와 자회사 OCI, OCI SE, 군산시와 함께 해양생물다양성 보존 사업을 위한 다년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해양생태계 보존 · 생물다양성 확보’

군산대-OCI홀딩스, 군산시와 해양생물다양성 보존 협약

국립군산대학교는 지난 10일 OCI홀딩스와 자회사 OCI, OCI SE, 군산시와 함께 해양생물다양성 보존 사업을 위한 다년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군산대학교 대학본부 4층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OCI홀딩스 성광현 전무, OCI 군산공장 정승용 공장장, OCI SE 김영도 상무, 군산시 김미정 부시장, 군산대학교 최연성 부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OCI홀딩스는 자회사 OCI, OCI SE와 함께 전북 지역 인근 해양생태계 보존 및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군산대학교가 운영하는 해양생태계 관련 교육 프로그램과 협업체 해양환경 보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전북 지역 시민들에게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이다.

12월에 OCI, OCI SE, OCI Power 등 자회사 임직원 및 가족들과 함께 군산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에서 주최하는 해양 생태계 다양성 보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OCI홀딩스 성광현 전무는 “생물다양성 보존은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활동”이라며, “OCI홀딩스는 앞으로도 지역 산업장 및 자회사와 연계한 다양한 생물다양성 보존 활동을 추진하는 동시에 생물다양성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ESG 경영 선도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대 최연성 부총장은 “해양생물 다양성 보존은 기업과 대학 지자체가 같이 협력해 할 중요한 일이다”라며 “전북 지역 인근 해양생태계 보존 및 생물 다양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기자

‘수험생을 위한 날’ ... 익산시 수능 종합대책 추진

교통 취약 15개 읍면지역 자율방범대 대응체계... 비상 상황 시 수송 대기

익산시가 2024 대학수학능력시험 중합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익산시는 오는 10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질 없이 진행되도록 수험생 수송대책과 안전 점검 등 사전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익산시는 수능 당일 오전 교통대책에 집중한다. 시내권보다 교통편이 부족한 15개 읍·면 지역 수험생을 대상으로 버스 연차에 대비해 자율방범대와 함께 비상 수송대책을 준비했다.

이날 오전 좁고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는 차량이 통제되고, 병목 지역에

는 교통경찰과 수험생 긴급 수송을 위한 순찰 오토바이 등이 집중 배치된다.

시는 경찰·소방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며 시험장 주변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시는 수험생 인근 교통량 분산을 위해 직원 출근 시간을 오전 9시부터 10시로 1시간 늦췄다. 이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연구기관, 사업체에도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교시장 주변 소음 최소화를 위해 이일여자고등학교 인근 공동주택 건설 현장과 원광고등학교 인근 축

사 등에 소음 통제를 요청했다. 또 익산역에도 영어 듣기평가 시간대 소음 최소화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수험생들이 오랜 시간 준비해온 수능 시험이 차질없이 원활하게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오는 10일 전국 각지에서 실시된다. 시험장 입실은 오전 6시 30분부터 오전 8시 10분까지 가능하며, 시험은 4교시 오후 4시 37분, 5교시 오후 5시 45분 각각 종료된다.

/익산=이재춘기자

익산시, 2023 SRT 어워드 최고의 여행지로 뽑혀

SRT기차 여행객들이 국내 최고 여행 핫플 도시로 익산시를 꼽았다.

시는 수서발 고속열차 SRT 차내지 SRT매거진 이 매년 국내 최고 여행지를 뽑는 ‘2023 어워드’에 2021년부터 3년 연속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SRT 매거진은 1만502명의 독자들의 설문조사와 여행작가, 여행기자 등 전문가 평가, 에디터 편집, 방문 관광객 데이터베이스(DB)분석, 온·오프라인 홍보자료 편의성 평가를 통해 최종 10개 도시를 선정했다.

시는 백제로의 시간여행이 가능한



역사 여행지로 각광받으며 SRT어워드를 비롯한 각종 수상으로 역사문화 관광도시로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백제 유적이 전시되어있고 가족관광

객에게 인기많은 ‘서동축제’와 밤밤의 백제왕궁을 느껴볼 수 있는 ‘익산문화재이행’은 이달 세계축제협회 피너클 어워드에서 2관왕을 수상하며 대한민국 대표 역사문화관광 자원으로 인정받았다.

한국관광공사 선정 대한민국 밤밤곡곡에서 미륵사지 미디어아트페스티벌, 서동축제, 익산문화재 여행 3곳이 선정되었고, 문화체육관광부 ‘로컬100’에서는 미륵사지가 선정되는 등 더욱더 백제역사여행으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익산=이재춘기자

익산시, 영호남 ‘상생 트래블마트’ 공동개최

익산시의 익산문화관광재단은 14일 서울에 위치한 연세대문호관에서 영호남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상생 트래블마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영호남 4개 기초지자체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업계 및 학계, 재단 등 관광업 관계자 100여명을 초청해 자유롭게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형성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상생 트래블마트’에는 익산시와 고창군 남해시 밀양시가 함께 참여해 영호남의 관광발전과 지역 교류 촉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1부는 각 지역의 관광관련초와 관광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관광 설명회로, 2부는 기업간거래(B2B) 트래블마트로

꾸며졌다.

익산시와 재단은 ‘익산치유투어’라는 테마로 왕궁리 오층석탑, 미륵사지, 용포공개나루, 산림문화체험, 아가페 정원 등 익산현답 관광명소 소개와 누리소통망(SNS)화제의 그곳 무왕의 꿈이 담긴 유네스코 루트 등 스토리 여행코스를 발표하여 익산관광 매력력을 알렸다.

또한 2부 관광 토크쇼에서는 관광전문가인 한국여행업협회 정후연 부회장, 한국관광학회 고계성 회장, 서울신문 손원천 국장, 한국스마트관광협회 김바다 회장 4명을 초청해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익산=이재춘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김장용 식재료 제조·판매업소 점검

군산시가 김장철을 앞두고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제조·판매업소를 점검한다.

시는 15일부터 17일까지 김장철 대비 김장용 식재료 제조·판매업소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용(김치, 고춧가루, 찧갈류) 식재료 제조·판매업소 30여 곳에 대해 3개 반 6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부패·변질된 원료(배추, 고추, 마늘, 수산물 등) 사용여부, 소비(유통기한 경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여부, 작업장 등 위생관리 및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김장용 재료의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거 검사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김장철을 앞두고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사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식품안전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기자

익산시의회, 예산안 심사 관련 직원들 교육 실시

익산시의회(의장 최중요)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의원들을 보좌하는정책지원관과 전문위원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예산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예산 분야 전문가인 나라살림연구소 손종필 전문위원이 강사로 나서 익산시의 재정현황 분석, 2024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예산안 심사 주요 방법 등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중요 의장은 “내년에는 지방교부세가 대폭 축소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꼼꼼한 예산안 심사가 필요한 시점이다”며, “단 한 톨의 예산이라도 허투루 사용되지 않고 시민들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